■ 집과 사람 광주시 신창동 용수마을 박금성씨 댁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흙냄새 나는 산책길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심의 자투리 땅이나 소규모 대지를 활용한 독특한 형태의 단독주택도 생겨나고 있다.

집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단순히 퇴근한 뒤 잠자고 식사하고 TV나 보는 공간이면 되는 걸까. 재테크의 확실한 수단인가. 집은 삶의 여유를 찾고,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최초의 공간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자신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집을 짓고 꾸미거나 가꾸는데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가꾸고 단장하는 집들을 소개한다.

담장 낮춰 이웃 모두와 가족
유리 천정 만들어 햇볕 쨍쨍

광주시 북구 신창동 용수마을의 박금성씨 집 전경. 경사진 지붕과 주택이 들여다 보이도록 낮은 담장을 낮게 한 것이 특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4차선 도로를 따라 첨단과학산업단지 방향으로 10분쯤 가다보면 진흥고 주변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옴직한 '그림같은 집'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유럽풍 경사진 지붕에 원목과 붉은색 벽돌 등으로 안팎을 꾸민 예쁘고 세련된 집, 낮은 담, 잔디깔린 마당, 문 앞의 넓직한 주차장, 보행자 전용 도로 등.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심 속 단독주택지와의 확연히 다르다. 주민 40여명은 이곳을 '용수마을'로 부른다.

사실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멋쩍다. 총 인구라야 12가구에 40명이 전부다.

◇**삭막한 도시 탈출**=박금성(56)씨 집은 용수마을에 지어진 마을 '1호'주택이다. 지난 2003년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면적 259.3㎡(78평)짜리 택지를 사놓고 2005년 집을 지어 옮겼다.

직업이 건축업인데다, 박씨 부부를 비롯, 아들·딸 부부와 손자가 모여살 집이라는 생각에 설계와 시공을 직접 지휘했다.

설계를 담당한 토방건축사 사무소측은 "3대가 모여사는 만큼 여유로우면서도 넓은 공용 공간, 각자 독립된 영역을 갖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외부에서 보면 2개의 경사 지붕으로 지어진 집과 멋진 주택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담장을 최소화시킨 구조부터 눈에 띈다.

집을 둘러싼 4개 면 가운데 전면은 나무를 심어 담장 역할을 하면서 개방감을 높였고 한쪽 면만 1m 남짓되는 낮은 담을 세웠다.

주변 벽돌 종류와 색깔을 다르게 배치해 단조로움을 피했고 뒷마당은 담없이 동네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연한 붉은색 벽돌로 꾸민 도시형 주택의 외형과 달리, 전형적인 한옥 분위기를 살린 목조 주택으로 바뀐 게 또다른 특징이다.

목조 벽·천정, 냉·난방 효과

시멘트의 삭막함을 줄이고 따뜻함을 보태기 위해 거실 천장과 벽에 나무를 댔다. 목조를 그대로 노출시켜 집을 떠받치면서 인테리어 역할까지 한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건축비 절감 효과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온도를 만들어 주는데도 한 몫해 효과가 만점이다.

거실 안쪽에 마련된 벽난로는 늦가을부터 겨울, 초봄까지 난방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2층의 썬룸과 베란다, 3층의 아늑한 다락은 천장과 벽이 목조로 둘러싸여 한옥 분위기가 가득하다.

썬룸은 천장과 맞닿은 2개 벽 등 3면이 유리다. 자연광에 노출돼 있는데다, 밤에는 별자리가 모두 보여 마치 투명 텐트에 앉아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썬룸 옆으로 베란다 공간을 넉넉하게 꾸며 집 앞 풍경을 내다볼 수 있게 한 것도 이 집의 특징이다.

계단으로 올라간 3층 다락은 이 집의 백미다. 보너스 공간으로, 전통 한옥 정서가 묻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디자인된데다, 5각형 구조의 독특함도 두드러진다. 지붕모양 따라 경사진 삼각형 천장을 따라 이어진 양쪽 벽, 바닥 등이 구조가 모두 나무로 꾸며졌고 양쪽 벽에는 한옥식 창틀과 창호지를 댄 여닫이 문으로 마감했다.

박씨 딸 주연(29)씨는 "날씨가 따뜻한 날이면 오각형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받으며 마시는 차 맛이 그만"이라고 말했다.

◇**생활 터전 옮기기**="답답해서 못 있겠어요."박씨 가족들이 광주시내 아파트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직접 집을 짓고 살겠다는 이유가 있다.

박씨 부인 김효숙(54)씨는 "좁아서 답답한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지 못하겠더라구요"라고 했다. 6년 전 2003년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신창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살 때 얘기다. 손바닥만한 작은 땅이라도 내집을 짓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토공 '아름다운 집'에 선정

땅을 산 뒤에도 박씨는 가족들과 그림같은 집이 즐비한 경기도 일산·분당 등으로 원정을 다니는 등 발품을 팔았다.

신경을 무척 썼던 탓인지 최근에는 기쁜 일이 생겼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한 '우리동네 아름다운 집'에 자신의 집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1층(127.65㎡)과 2층(102.03㎡)을 합쳐 70평 규모로 짓는데 들어간 건축비용은 3.3㎡당 350만원 정도다. 단독택지 1필지(평)를 1억원 가량에 산 것을 감안하면 대략 3억원 정도면 연면적 70평짜리 단독주택을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웃들과 바베큐 파티**=집을 짓고 산 뒤 이들 부부는 전원 생활의 편안함을 얻었다.

집 주변 빈 터를 활용, 비료 하나 쓰지 않고 쑥갓, 상추, 고추, 옥수수 등을 직접 기른다. 먹을 만큼 뜯어와 싸 먹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마음껏 뜯어주기도 한다.

집 주변에 사는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가 하면 매주 마을 청소 등 동네 가꾸기에도 직접 나선다.

마을 입구에 '용수마을'이라는 표시를 세우고 꽃동산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 6개의 석탑을 만든 것 모두 주민들 스스로 했다.

매일 밤 자율적으로 순찰을 돌고 주민들 스스로 금연 마을로 지정했다.

'따로 또 같이'살고 있는 이웃들, 모두 행복에 겨운 표정들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라는 꿈을 이뤄서일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붕모양 따라 오각형 구조가 독특한 3층 다락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용하게 쓰는 벽난로

신창동 주택단지의 용수마을 전경.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